

■ 7곳 참가... 불 붙은 광주은행 인수전

분기순익 836억 '알짜' 인기
매각방식·자금력이 변수

광주은행 인수전에 7곳이 뛰어들면서 주인공이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6일 광주은행 입찰참가의향서(LOI) 접수를 마감한 결과, 당초 예상했던 5곳보다 2곳이 더 뛰어 들었다. ▲광주상의를 주축으로 한 광주은행출자자협의회 ▲전북은행 ▲대구은행 ▲우리금융컨소시엄 ▲중국 공상은행 ▲미국계 사모펀드인 칼라일그룹 ▲호주의 투자은행(IB)인 맥쿼리 등이 인수 의향을 밝혀 7파전 양상이다. 이에 따라 이들 사이의 합종연횡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음달 20일 예비 입찰까지 이들의 '합종연횡'과 '자금력'은 광주은행 인수전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내달 20일까지 인수자 합종연횡 주목

광주상의 등 지역자본 분리매각 대비

◇광주은행 7파전-예상 밖 '인기' = 명분과 실리가 겹치면서 경쟁률을 높였다. 광주상의와 전북은행은 호남 향토은행으로서 가치와 필요성을 내세우며 인수전에 뛰어 들었다. 광주상의는 "지역자본으로 인수할 때 본연의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지역의 자본이나 해외자본으로 매각된다면 향토은행으로서 우월적 지위가 사라져 지금과 같은 순이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전북은행도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호남에 연고를 둔 지방은행이 필요하다"며 "광주·전남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구은행과 중국 공상은행 등은 광주은행 인수를 통해 국내 금융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대구은행(자산규모 32조9600억원)은 광주은행과 경남은행(24조7000억원)을 모두 인수해 지방공동 금융지주회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대구은행은 경상

도는 물론 호남권까지 아우르는 지방은행 최고 강자로 등극한다. 중국 공상은행은 글로벌화를 추진하면서 한국 진출에 관심이 높은 경우다. 대형은행을 인수해 리스크를 키우는 것보다는 광주은행 같은 작은 은행부터 시작해 국내 은행에 대한 컨트롤 파워를 키우는 것이 목표라고 금융권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복잡해진 매각 방식과 변수는 = 최대 변수는 매각 방식이다. 광주은행을 우리금융지주에서 떼어내 분리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통째로 매각할 것인지 여부가.

금융권 관계자는 "예비입찰이 이뤄지는 다음달 20일 전까지의 향서를 제출한 기관끼리 합종연횡이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D운수 등 광주·전남 지역기업 대표 10여명으로 구성된 출자자협의회는 '지역 자본에 의한 향토은행 인수'를 내세우며 분리매각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다. 2500억~3000억을 자체 조달하고 지역 연고 대기업과 해외투자자 등을 끌어들여 최대 7500억원의 인수자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은행은 자산규모가 광주은행에 비해 10조원이나 적어 '새우

가 고래를 삼키는 꼴'로 인수자금 조달 방법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전북은행은 국내외 5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광주·전남 업체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은행의 경우 경제논리를 떠나서 미묘한 지역정서와 이해관계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때문에 대구은행은 독립 경영 등을 내세우며 '1지주 2은행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중국 공상은행은 반증 감정과 기업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금융컨소시엄과 칼라일그룹, 맥쿼리그룹은 우리금융그룹의 통매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금융컨소시엄은 우리금융의 기업가치 훼손 등을 우려해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을 포함한 일괄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칼라일과 맥쿼리는 일단 우리금융지주와 광주은행·경남은행 등 동시 입찰 참여의향을 보였지만 지방은행 일부만 사들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칼라일은 경영권 인수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향후 일정한 컨소시엄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광주은행은 어떤 곳 = 광주은행은 올 3분기 총 자산 17조9000억원, 당기순이익 836억원, 영업이익 1153억원을 기록,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알짜' 지방은행이다. 영업이익 139개, 직원 수 1280명(정규직)에 이른다.

특히 당기순이익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2000년 -1405억원에서 2001년 663억원으로 경종 오른 뒤 2005년 1247억원, 2007년 1126억원, 2008년 1034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금융위기 광풍이 몰아친 2009년에도 620억원을 기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대한항공 여행사진전

대한항공 여행사진전이 최근 광주 금남로 4가역 메트로갤러리에서 열려 내빈들이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지난 4일 시작된 전국 순회전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12월1일까지 대상작인 '그들의 산토리니' 등 수상작 67점이 선보인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중소형 아파트 2달새 443만원 올랐다

광주지역 80곳 시세 분석...공급 부족 전세난에 가을 이사철 겹쳐

최근 광주지역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소형 아파트의 시세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부동산정보업체 사랑방신문이 지난 9~11월 3개월간 '사랑방부동산(sarangbang.com)'에 실린 광주지역 주요 소형 아파트 단지 80곳의 시세를 분석한 결과, 두 달 사이에 평균 443만원(9월 대비 4%)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최근 2년간 건설사들이 신규 분양을 줄이면서 공급물량이 부족해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가을 이사철 등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서구지역 아파트가 평균 885만원(8%)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북구가 714만원(7%), 남구 512만원(4%), 광산구 279만원(3%) 순이다. 동구는 173만원(-2%) 하락했다.

조사 대상 아파트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곳은 북구 일곡동 대림2차 105㎡ 평형으로, 지난 9월 평균 1억2200만원이던 호가가 두 달 사이에 2800만원(23%) 뛰어 1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남구에서는 봉선동 포스코대삼 109㎡이 9월 대비 2375만원(11%) 올라 2억45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남구청 이전계획 등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백운동 역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사직스카이 105㎡는 지난 9월 7200만원에서 9033만원으로 1833만원(25%) 올랐고, 현대 105㎡도 1800만원(19%) 상승했다.

서구는 광천동 대림e편한세상 109㎡가 9월 2억3575만원이던 시세가 이달 들어 2억5167만원으로 1592만원(7%) 상승했고, 금호동 중흥아파트 79㎡는 1167만원(13%), 대주파크빌 82㎡는 1134만원(12%) 증가했다. 광산구도 운남동 삼성 89㎡이 1642만원(22%) 올랐고, 월계동 모아 115㎡는 1267만원(10%) 상승한 1억3367만원에 거래됐다.

반면 동구는 계림동 금호주상복합 79㎡형이 450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난 9월 7200만원에서 9033만원으로 1833만원(25%) 올랐고, 현대 105㎡도 1800만원(19%) 상승했다.

서구는 광천동 대림e편한세상 109㎡가 9월 2억3575만원이던 시세가 이달 들어 2억5167만원으로 1592만원(7%) 상승했고, 금호동 중흥아파트 79㎡는 1167만원(13%), 대주파크빌 82㎡는 1134만원(12%) 증가했다.

광산구도 운남동 삼성 89㎡이 1642만원(22%) 올랐고, 월계동 모아 115㎡는 1267만원(10%) 상승한 1억3367만원에 거래됐다.

반면 동구는 계림동 금호주상복합 79㎡형이 450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역 제조업체 내년 1분기 경기전망 낙관 BSI 지수 102

광주·전남지역 제조업체들은 7분기 연속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원자재가 상승, 환율 불안정 등 악재도 적지 않아 기대감은 전반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줄어 들었다.

28일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 1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1분기 제조업 기업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102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4분기(106)보다 낮지만 7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지난 분기에 비해 '호전된다고' 예상한 업체는 27.4%로, '악화

된다'고 예상한 업체 24.8%보다 많았다. 경기상황이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47.8%였다. 지역 주력산업인 가

로도복권

(제417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4 5 14 20 22 43	44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2,818,329,938	4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5,261,372	34
3 5개 숫자 일치	1,590,929	1,181
4 4개 숫자 일치	50,000	58,879
5 3개 숫자 일치	5,000	1,001,817

팝콘복권

(제214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2조 248000
2	1억	4조 938690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	1백만	각조 91443
5	50만	각조 4396
6	2천	각조 27
		각조 59
		각조 46
		각조 2
7	1천	각조 3
		각조 9

광주·전남 휘발유값

7주 연속 고공행진

광주·전남 지역 휘발유 값이 7주 연속 오르고 있다.

2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오피넷)에 따르면 광주지역 11월 넷째주 보통휘발유 판매가격이 한 주 사이 9.5원이 오른 1714.78원을 기록했다.

이는 10월 첫째주 1672.53원 이후 7주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6월 첫째주(1705.24원) 이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특히 동구 P주유소 등 광주지역 주유소 4곳은 휘발유 값이 1 1798.00원으로 1800원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자동차용 경우 9.94원이 오르면서 1516.51원을 기록했다.

전남도 11월 넷째주 휘발유 값이 1 1714.26원으로 전주보다 7.14원이 올랐다. 전남도 10월 첫째주(1680.98원)부터 7주 연속 휘발유 값이 상승하고 있으며, 5월 넷째주 1 1718.39원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용 경우 1516.25원으로 한 주 사이 8.19원이 올랐다.

/이은미기자 emlee@

GM대우 마티즈

1만1천여대 리콜

국토해양부는 28일 GM대우에서 제작·판매한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에서 결함이 발견돼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7월27일부터 올해 3월30일 사이에 제작된 총 1만1049대다.

이들 차량에서는 시동을 끄고 15초 이내에 제시동을 걸어 운행 중 충돌했을 때 조속히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9일부터 GM대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고, 리콜 전 수리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신청을 하면 된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1,901.80 (-25.88)
코스닥지수	493.56 (-14.7)
금리 (국고채 3년)	3.30% (-0.01)
원·달러 환율	1,159.50원 (+21.7)

※수치는 26일 기준 1주전과 비교

인생이 순탄하지 않으십니까?

인생의 모든 길흉화복은 성명 삼자에 다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온가족의 이름을 무료로 감정해드립니다.

신생아작명전문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이름입니다.

타고난 사주(숙명)가 하나인 것처럼 자기에게 맞는 이름(운명)도 하나뿐입니다. 예로부터 사주가 좋은 거지는 있어도 이름 좋은 거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숙명(사주:년·월·일·시)은 바꿀수 없지만, 운명(성명)은 바꿀수 있습니다.

1. 아무리 사주에 좋은 행운(幸運)과 복(福)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성명삼자(姓名三字)가 좋지 않을 때에는 필히, 불의의 재앙(災殃)과 악운(惡運)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성명삼자로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의 길흉화복(吉凶禍福) 및 재물운(財物運)을 신기하게 알 수 있습니다.
3. 성명삼자로 일평생의 모든 운(運)이 좌우되오니 이번 기회에 감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전화로
예약을 해주시기
바라며 주말에도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허가]

星谷 傳統文化 硏究會

대표전화 227-2356

星谷作名·鑑定專門哲學院 010-7671-5623

위 치: 동구 계림동 마사회 진주가구 사거리 옆 성곡빌딩 1층

e소풍닷컴
(주)평화의 섬 제주여행사

- 제주시 노형동 2292-1번지 현일B/D A동 1층
- 등록번호 616-81-32024

주소창에서 **e소풍닷컴** 을 치세요.

크루즈투어(목포, 녹동출발)

제주도 여행 1박 2일 79,000원

(한라산등반 또는 제주관광)

목포출발

2박 3일
89,000원

★일정

- 1일째 : 목포국제여객터미널 출발-제주항도착 및 직원미팅
- 2일째 : 오설록녹차유지엄경영-제주유리의성-서커스월드-석부작테마파크-중식-유람선(울선)-제주올레길 7코스 맛보기(1시간)-천지연폭포
- 3일째 : 삼나무숲길경영-코끼리랜드(울선)-성음민속마을-중식-일출랜드-광치기해안가-부두

- ★포함사항: 선박료, 숙박료, 조.중.석식 2회, 입장료, 차량료
- ★불포함사항: 읍선코스, 기사, 가이드 수고비

녹동(고흥)출발

2박 3일
89,000원

★일정

- 1일째 : 녹동연안부두 출발-제주항도착 및 직원미팅
- 2일째 : 오설록녹차유지엄경영-제주유리의성-서커스월드-석부작테마파크-중식-유람선(울선)-제주올레길 7코스 맛보기(1시간)-천지연폭포
- 3일째 : 삼나무숲길경영-코끼리랜드(울선)-성음민속마을-중식-일출랜드-광치기해안가-부두

- ★포함사항: 선박료, 숙박료, 조.중.석식 2회, 입장료, 차량료
- ★불포함사항: 읍선코스, 기사, 가이드 수고비

※ 1일 한라산등반 + 1일 제주관광 99,000원

호텔 | 팬션 | 렌트카 | 제주배편 예약가능

전화 064-745-0963

(주)평화의섬제주
www.esopung.com씨월드고속훼리
남해고속훼리